

트럼프 “이란 통일된 제안 제출·협상 종결까지 휴전연장”

2주 휴전 만료 전날 전격 연장 발표...구체적 휴전 만료 시점은 안밝혀
‘협상 진행 중 휴전 계속’ 구상인 듯...대이란 해상봉쇄·준비태세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현지시간)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휴전 연장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로만 표현,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않고 휴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군총사령관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discussion·양국간 협상)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그 외의 준비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은 '2주 휴전' 만료 전날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2일 저녁

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휴전이 만료되면 연장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해왔으나 결국 만료 시한에 압박해 연장을 택했다.

휴전 연장의 이유로 중재를 자임한 파키스탄의 요청과 이란 내부의 분열상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실상의 정권 교체로 이란의 새 지도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란 군부 및 협상단 내의 이견을 이유로 들며 휴전 연장 정당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란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휴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전이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란이 받아들이고 대형 변수가 없다면 보달 이상의 휴전도 가능할 수 있다.

휴전이 연장되더라도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되며 공격 재개를 위한 준비태세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선언이 이란과의



테헤란 광장 미사일 21일(현지시간) 테헤란 엔젤라프 광장에서 열린 공개 집회에서 이란 협상팀을 지지하는 의미로 '코람샤르-4' 미사일이 전시되었다. /UPI=연합뉴스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협상 참여 여부를 막판까지 분명히 하지 않던 이란의 입장 표명이 주목된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당초 이날 오전 파키스탄으로 떠날 예정이었으나 이

날 오후까지 백악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2주 휴전 만료 전 협상 재개가 가능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

일도 미성년자 SNS 제한 검토...연령 필터링 추진

법 개정 고려...올여름 구체적 결론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시행 또는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SNS 연령 제한 조치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SNS 이용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 법 개정 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먼저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옛 트위터) 등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한다. 제한 연령은 향후 결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하는 통신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는 SNS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꺼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이 있어도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아울러 총무성은 SNS 사업자에게 자사 서비스에 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운영체제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 이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할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

中, 최신 강습상륙함 남중국해 투입...美日필리핀 훈련 맞대응

중국 "정상 훈련...특정 국가 겨냥아나"

미국·일본·필리핀 등이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하자 중국이 최신 강습상륙함을 남중국해에 투입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해군은 21일 밤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최초의 076형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최근 상하이로 출항해 남중국해 관련 해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시험과 훈련 임무를 수행하면서 함정 내 여러 시스템과 플랫폼 성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은 이번 항해가 합정 건조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원해 시험 및 훈련으로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은 현재까지 중국이 건조한 상륙함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처음으로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대형 무인기를 사출해 공격과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12월 말 상하이에서 진수했으며, 만재 배수량은 4만 이상이다. 직선형 비행갑판을 적용해 항공기 운용 효율을 높였고, 전자기식 사

출과 작함 저지 기술을 동시에 도입해 작전 능력은 준(準)항공모함급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라오닝함의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만 국방부는 20일 라오닝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갑판 위 함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선명하게 포착됐다.

중국은 라오닝함의 구체적인 임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남중국해로 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워시 인준청문회...‘12월까지 금리동결’ 확률 상승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린 21일(현지시간)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의 확률이 상승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투에 따

르면 한국시간 22일 오전 10시30분 현재 연방기 금리 선물시장은 기준금리가 현 수준(3.50-3.75%)에서 12월까지 동결될 확률을 67%로 반영했다.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미국 국제 금리도 올랐다.

21일 미국재 10년물 금리는 4.233%로 4.10bp(1bp=0.01%p) 상승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3.782%로 5.9bp 올랐다.

다만 블룸버그는 강한 경제 지표와 배럴당 90달러를 다시 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금리인하 기대를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워시의 증언보다 이런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